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729>

JCCT 2024-7-85

대학의 역량 중심 교육 방안에 따른 프랑스어 교양교육의 방향성 고찰

A review of the direction of French liberal arts education based on a university competency-based education approach

김은경*

KIM Eunnekyung*

요약 우리는 OECD의 핵심역량 제안과 관련하여 한국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어떤 교육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대학은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의 방향성을 재고하며 역량중심 교육을 인적, 사회적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대학은 핵심역량을 선별하고 구성하여 대학이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교육목표에 도입한다. 교육부 주관하에 핵심역량 중심 교육은 무엇보다 대학의 교양강좌에서 구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접목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문화 이해와 함께 언어습득은 무엇보다 다양성과 상호이해 측면에서 학습자의 역량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우리는 프랑스어 교양교육에 이를 반영하여 학습자의 동기부여와 관련한 다양성 존중과 상호문화이해 역량 교육을 강의에 접목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모색하려 한다. 우리는 학습자의 수용 결과를 도출하면서 기존의 능력 중심의 평가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표 과제와 협업과 상호문화이해 과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따라서 핵심역량 교육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가치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주요어 : 핵심역량, 프랑스어 교양교육, 학습자, 다양성 존중, 상호문화 이해

Abstract In connection with the OECD's core competency proposal, we would like to consider an attempt to realize this in liberal arts education at Korean universities and examine what kind of education plan it is desirable to present to learners. Universities are expanding competency-based education into human and social fields by reconsidering new talent awards and the direction of education. In this way, each university selects and organizes core competencies and incorporates the core competencies that the university pursues into educational goal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centered on core competencies is exploring its potential in liberal arts courses at universities above all else. We want to explore a methodology that can achieve learner-centered teaching and learning effects in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and accepting this. Language acquisition along with cross-cultural understanding is above all else a part that can promote learners' competencies in terms of diversity and mutual understanding. Therefore, we reflect this in French liberal arts education and explor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by incorporating respect for diversity and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competency education related to learners' motivation into lectures. We aim to supplement this through collaboration and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processes as presentation tasks in order to overcome the existing competency-based evaluation while deriving acceptance results from learners. Therefore, they recognize that the direction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naturally shifts to value-centered education.

Key words : Core Competencies, French liberal arts education, Learners, Respect for Diversity, Understanding Intercultural Understanding

*정희원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5월 13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5일

Received: May 13, 2024 / Revised: May 30, 2024

Accepted: June 15, 2024

*Corresponding Author: claire12@smu.ac.kr

Dept. of Global business, Sangmyung Univ, Korea

I. 서론

오늘날 세계 각국은 OECD가 제안한 ‘핵심역량의 새로운 정의와 선별’(DeSeCo)[1]과 관련하여 자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역량을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교육과정을 재설계해 왔다[2]. DeSeCo 프로젝트의 목표에서 ‘성공적인 삶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역량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에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그 능력은 ‘인지적, 실천적 기능 면에서 정보, 지식의 활용과 적용 능력,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자기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등, 자율적인 행동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3]. 이에 따라 한국대학은 새로운 인재상 및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장려하고자 역량 중심 교육을 인적, 사회적 분야로 확대하여 그 기반을 넓혀 나갔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대학이 추구하는 다채로운 핵심역량을 대학의 교육목표에 도입하였다[4].

상명대학교는 그림 1과 같이 2012년 대학이 추구하는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상명인이 갖추어야 할 5대 핵심역량을 확정하였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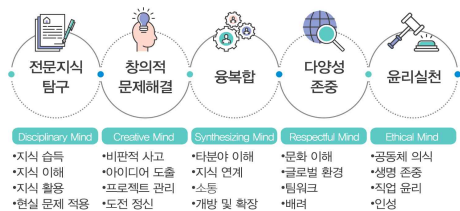


그림 1. 상명인(SM-IN) 5대 핵심역량
Figure 1. Sangmyung student's 5 core competencies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명대학교는 교과(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마다 함양할 수 있는 대표 핵심역량을 설정하였다. 이 핵심역량은 교과의 강의계획서에서 또 비교과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다. SM-IN 핵심역량 진단을 통해 재학생의 역량을 측정하며, 진단 참여로 개인별 역량 점수 변화와 전체 재학생 대비 역량 진단 평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교육부 정책과 연계하여 대학은 특히 교양교육에서 핵심역량을 발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6]. 이는 지

식 전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디지털 생태계의 흐름 및 인공지능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육의 미래를 향한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OECD의 새로운 2030프로젝트[7]의 변혁적 역량의 목표는 개인과 사회의 더 나은 삶과 포용적 가치 기반의 성장을 추구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스스로 주어진 책무에 건전한 태도로 임하고, 올바른 인간 형성의 길과 새로운 가치 창출, 창의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갈등을 넘어서는 상호관계 증진에 이바지하는 교육적 지향점을 갖도록 하였다[8].

이제 우리는 본 연구의 주제인 대학의 프랑스어 교양 교육과 관련한 역량중심 교수법을 고찰해 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간략하게 그 학습 과정과 함께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돌아보고, 그 성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리의 연구설계는 2023년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1학기는 학기 초 수강 동기 설문과 과제 활동을 예시로 들었고, 2학기는 핵심역량 성취 관련 설문을 진행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해 보았다.

II. 핵심역량에 따른 교수법 시도

프랑스어기초 교양강의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핵심역량은 무엇보다 지식탐구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학의 프랑스어 교양강의는 일반적으로 기초도구로 역할 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여기서 역량 습득의 다각화를 위한 시도로 교수학습 운영을 언어습득뿐만 아니라 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상호이해와 다양성 기반의 역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지식에서 역량으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9]. 여기서 교육의 전환을 반영한 제2외국어 교과역량으로 의사소통 역량과 상호문화 이해 역량, 디지털 기반 정보활용 역량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도도 이 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수강생 70명과 주당 100분 강의로 15주간 습득할 수 있는 언어능력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수자의 핵심 역할은 지식 전달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배움을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제2외국어 학습에서 학습동기 발현의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가 통합적 동기로 문화이해를 통한 사회적 관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10].

교수자는 기초문법과 회화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프랑스문화를 소개하고 그 문화적 차이나 특징을 예시로 들어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가 지적인 자극을 받도록 돕는다. 프랑스어 기초 과정이기에 수강생들의 프랑스어 수준은 매우 낮지만, 프랑스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드물게 수강생 중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학습 평가에서 등급을 산정할 때 교수자에겐 곤혹스러울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함께 협업하는 장을 마련하면 오히려 훌륭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학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의무적이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Q&A 시험이 주를 이룬다. 프랑스어 교양강좌는 중간고사 35점/기말고사 35점/출석 10점/기말 과제 20점을 배분하고 있다. 기말과제에 자발성과 창의적인 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제 주제를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프랑스어’로 유도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과제 관련해서 설명할 때 교수자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준다. 이때 프랑스영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나, 샹송의 가사, 격언, 속담, 또는 문학작품 속 의미 있는 문장 등을 예시로 제시한다.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이러한 예시는 각 주차 학습교안 ppt에 수록되어 있다. 즉, 이것은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내용에 있는 것을 학생이 교수자가 되어 학습안을 짜보게 하는 시도이다. 이 과제는 상호문화적 소통과 더불어 창의적 접근과 융복합적 사고, 자발적 학습 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프랑스인 여자 친구와 교체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이다. 이 학생은 놀랍게도 원어민 수준의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기말과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간 배분을 위해 몇몇 학생들의 과제를 선별하여 발표 기회를 부여하는데, 마침 이 학생에게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어의 원래 뜻과는 거리가 있는 <프랑스어 관용적 표현> 발표 내용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많은 수강생이 프랑스어 독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문화이해 측면에서는 지적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었다.

avoir la main verte 정원일을 잘하다
 mettre l'eau à la bouche 군침이 돌아
 avoir les yeux plus gros que le ventre 과욕을 부리다

quand les poules auront les dents 해가 서쪽에서 뜰 때
 avoir le coup de foudre 첫눈에 반하다



그림 2. 수강생의 발표자료
 Figure 2. Student presentation materials

그림 3의 쟁말놀이 보너스 학습은 수강자들 모두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며 강의실을 문화콘텐츠 공연장으로 화하게 했다. 이 시간은 수강생 모두에게 공동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지식 범주를 뛰어넘는 학습공동체적 역동성을 경험하게 했다.

1. Elle est partie avec tonton, ton Taine et ton thon.
2. Un généreux déjeuner régénérerait des généraux dégénérés.
3. Écartons ton carton car ton carton nous gêne.
4. Son chat chante sa chanson.
5. Sixcents scies scient cent cigares, six cents scies scient six cents cigares, six cents scies scient six cent six cigares.

그림 3. 발표에 추가된 보너스 학습
 Figure 3. Bonus learning added to the announcement

언어유희 중 쟁말놀이는 누구에게나 흥미와 호응을 유발한다. 위에 소개한 문장 속 단어들의 어려운 발음으로 인해 교수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한껏 협업의 장을 펼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겐 엘 에 빠르띠 아벡 똥똥 똥 똥느 에 똥똥, 엠 제네레 데주네 레제네레 데 제네웨 데제네레로 들린다. 이러한 기회는 문화적 이해의 연장과 상호문화적 성찰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11].

우리는 협업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이미 ‘의사소통 접근법approche communicative’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12]. Kerbrat-Orrecchioni(1998)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간의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인 강의실은 축소된 사회적 공간으로 언어교환의 학습 행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측면의 모든 교환 행위도 공동의

학습 역량과 상호이해 역량을 충족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은 무엇보다 교수자의 행위에 기대하여 학습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13].

두 번째 사례는, 언어습득의 문제에서 영어교과와 관련하여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이다. 한국 사회에선 특히 입시와 관련된 주요 교과는 매우 예민한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입시에 대해서 학생의 장래 문제와 직결되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시 영어 수업 시간에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영어교과 수업 시간에 조원들 간의 협업 수행 시 잘못된 조원이 있는 경우 단체로 벌을 받게 했다고 한다. 그 뒤로 그는 언어습득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대학 진학 후 외국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 학생은 프랑스어에 도전해 보라는 선배의 조언으로 교수자가 담당하는 프랑스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다.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주간 이후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그림 4에서 보듯이 수업 첫 시간에 조사한 설문에서, 교수자의 학습 방향을 듣고 용기를 내어 마음의 병을 고치고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언어습득의 문제는 정서적 안정감 및 자기효능감 획득 관련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본 설문지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100명 학생이 참여하여, 100%의 응답률을 보였다. 본 설문지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지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지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그림 4. 강의 OT 설문 - 수강 동기와 수업에 바라는 점
Figure 4. Course OT Questionnaire – Motives for taking the course and what you want from the class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교양수업으로 수강하는 이유나 목표가 언어습득 이외에도 지적 자극과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미지의 세계 탐구와 모험을 하는 데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우리는 이것이 역량중심 탐구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인적 가치 추구에 접목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교수의 목적은 각 개인의 지식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15]. 세 번째 사례는, 언어습득 외에 정서적 측면이나 문화적 차이,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시하는 수업 방식이다. 이 학습의 차별성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연마할 수 있는 교양의 폭을 넓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중간고사 이후 그림 5의 난이도가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비해선 다소 어려운 회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미리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과 줄거리 내용을 설명해 주자,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영상의 내용은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인사 ‘Bonjour(안녕하세요)’를 하는지 주인공이 젊은 청년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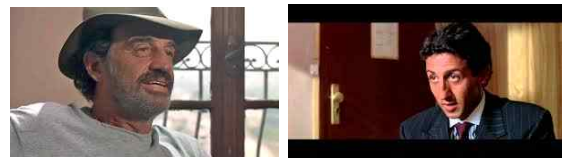


그림 5. 영화 <여정>의 ‘Bonjour’ 하는 법 설명하는 장면
Figure 5. Dire bonjour <Itinéraire d'un Enfant Gâté>
A scene explaining how to play “Good morning”

짧은 영상이지만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 큰 교훈을 선사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 샘은 청년에게 ‘Bonjour’를 반복해서 연습시키는데 이 장면은 단순한 인사말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소통의 기본적인 중요성을 피력하며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 자신감과 자기표현의 적절함, 새로운 출발의 상징적인 의미 등, 삶의 단순함과 본질로 돌아가 보기를 가르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장면을 통해 샘은 청년에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전달한다. 이 영상을 본 후 학생들은 ‘Bonjour’ 인사를 아주 차분하지만 분명하고 자신 있게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 영상을 통해 학생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삶의 태도를 학습한 것이다.

언어학습 외에 짧게나마 프랑스 사회문제나 관습, 문화적 특이성, 철학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대학 강의에서 역량 습득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문지식탐구와 함께 창의적문제 해결능력 및 융복합 능력, 다양성 존중, 윤리실천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학기 말이 다가오는 두 시간 수업에서 교수자는 강

의가 전문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강의 시간에 배운 본문 대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구사하도록 학생들에게 요청했다. 학생들이 의외로 먼저 답한 친구들의 문장을 그대로 따라 답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 왜 다른 학우들을 따라 하지? 그냥 쉬워서 아니면 실수에서 자유롭고 안전하니까? 그 예 중 하나가 “Il faut des légumes(채소가 필요해)”였다. “Bonne idée(좋은 생각이야)”와 같은 상대적으로 쉬운 표현이 있었는데도 굳이 왜 이 문장을 계속 따라 했는지 의문이 계속되었다. 언어학습 또는 외국어 구사에서 다른 학습자 내지 타언어구사자의 표현을 습득하는 모방학습 관련 흥미로운 연구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16].

또 다른 한 가지는 용의 상상이론을 접목하여 ‘R=VD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정의를 들려준 경우이다. 학생들의 반응은 “Je vais à Paris(나는 파리에 간다)”와 “Je suis à Paris(나는 파리에 있어)”가 대체를 이루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의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이 내놓은 대답은 외국어인 프랑스어를 배워 프랑스에 가고 싶은 소망을 담은 것이 확실해 보였다.

III. 논 의

교수자는 담당 교양교육 교과목 강의를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먼저 각 대학이 설정한 교육의 범주를 고려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목 강의에 들어가면 교수자는 거시적 목표를 일률적으로 지향하기에는 학습자 개개인이 느끼는 성취 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기대 역량 측면에서도 그 기준점에 적잖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역량 성취도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목표역량보다는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의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프랑스어 교양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강목적은 다양하다. 학생들은 유학을 위한 전공 심화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프랑스 여행을 위한 실용적 목적, 또는 프랑스문화에 관한 관심과 기대 등으로 수강신청을 한다. 프랑스어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언어학습의 관문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프랑스어 교양강좌의 경우 성인이 되어 처음 배우는 언어학습치고는 강의 시수가 크게 부

족한 실정이다. 한국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서 프랑스어 습득의 과정은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기보다는 초급단계에서 학습을 끝내게 되어있는 일종의 ‘앙트레 맛보기’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어습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이전에 프랑스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 우선으로 요청되는 당위성이 있다.

또한 프랑스어 교양강의는 대학에서 대부분 기초 소양 교육에 한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학습방안을 검토하기에는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적은 시수에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우리의 상호문화적 이해 및 다양성 구축을 위한 학습 시도는 한정된 학습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에게서 지속적인 프랑스어 학습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려는 의도에 부합한다[17].

IV. 평 가

우리의 연구는 대학의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에 고려할 사항을 표1과 표2,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으로 알아보려고 했다. 2023년 2학기에 총 3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회에 걸친 만족도 조사와는 별개로 1회 최종 설문에서 견해를 묻는 개방형 서술식 문항을 추가하였다. 참여도를 고려하여 강의 시간에 설문지에 직접 의견을 쓰도록 하였고, e-캠퍼스 학습활동란의 설문조사와 병행하였다. 3회차 설문 문항은 역량의 범주를 다양성존중(상호문화역량)과 융복합, 지식탐구로 학생들의 선택을 위해 구체화하였다.

표 1. 설문 1, 기대역량
 Table 1. Questionnaire 1, Expected Competency

프랑스어기초 강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평가일시 및 참여인원	2023-09-20 70명 중 64명 응답
평가 결과	상명대 5대 핵심역량 중 학생들이 기대하는 역량은 응답자 중 전문지식탐구 23 (35.9%) 창의적문제해결 능력 1 (1.5%) 융복합 22 (34.3%) 다양성존중 17 (26.5%) 윤리실천 1 (1.5%)
평가 이해	학기초 학생들의 수강목표가 언어습득과 융복합 능력 및 다양성존중 등 다채로운 점을 알 수 있다.

표 2 설문 2 역량강화 - 중간평가

Table 2. Questionnaire 2, Competency Reinforcement

프랑스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평가일시 및 참여인원	2023-10-25 70명 중 68명 응답
평가결과	전문지식탐구 60 (88.2%) 창의적문제해결 능력 4 (5.8%) 융복합 2 (2.9%) 다양성존중 2 (2.9%)
평가이해	중간고사 당일 시험지에 역량평가 문항을 제시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 프랑스어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5. 남성, 여성으로 나누는 프랑스어의 특이한 문법이 흥미로웠고 알파벳도 재미있었습니다.
6. 언어습득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번역 없이 접할 수 있어 큰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기엔 부족하지만, 프랑스어를 한다는 자부심과 프랑스의 문화 예술을 예쁜 언어로 접하며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7. 우아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프랑스 여행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표 3. 설문 3, 역량 충족과 만족도 관련 구체적 견해

Table 3. Questionnaire 3, Specific views on competency fulfillment and satisfaction

설문 실시 일정	2023-12-06
설문 문항	프랑스어는 어떤 역할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역량 분야	환류
다양성존중 (상호문화역량)	1. 프랑스어 강의를 통해 언어문화나 예절 등을 알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2. 상호문화이해 측면에서 프랑스가 더욱 관심 있게 다가왔습니다. 3. 프랑스문화라는 다른 문화를 앞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5.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므로 상호이해 역량이 충족되었습니다. 6. 수업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7. 프랑스문화를 접하고 프랑스인들의 삶, 생각 등을 가까이하며 그들과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융복합역량	1. 프랑스어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문화와 예술 관련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프랑스의 다양한 일상 문화와 여러 매체를 통해 학습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3. 교수님이 항상 한 학생씩 프랑스어 말하는 걸 시켜주셔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부끄러웠던 것이 조금은 탈해진 것 같다. 4. 학습자료 중 상송을 통하여 프랑스어 문법과 표현을 복습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5. 상송이나 다양한 학습자료 덕분에 더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지식역량 및 활용	1. 프랑스어를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다. 2. 프랑스어를 몇 마디라도 한다는 자신감이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3. 아는 기쁨을 느끼는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학습자가 프랑스어 교양교육을 통해 학기초에 기대하는 핵심역량은 ‘전문지식탐구’와 ‘융복합능력’에 크게 기대하였고 ‘다양성존중’ 역량에 대한 기대도 다소 엇보인다. 중간고사 기간 중 실시한 설문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취도를 반영하듯 ‘전문지식 탐구’에 크게 비중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대학이 추구하는 역량중심 교육방안은 새로운 인제 상의 발굴과 학습자의 역량을 다채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설계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능력 중심의 평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모순적이다. 따라서 프랑스어 교양수업 설계를 하면서 무엇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표와 과제를 통해 협업을 이끌고 다양성존중과 상호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핵심역량 중심 교육은 지식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의 의미보다는 지식과 연계된 가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에 더 가깝다. 지식습득을 수반하는 교과에서도 역량 구현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학기를 마치는 시기에 이르러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역량 측정은 객관적 도식을 적용할 만한 범주를 넘어선다. 그 이유는 지식의 활용이나 현실 적용의 사례는 차후 인생의 전반적인 행동에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탐구 영역에서도 이렇진대 창의적 문제해결, 융복합, 다양성존중, 윤리실천 역량 등의 핵심역량에 구현된 구체적인 학습 효과를 평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학기 초 학생들의 기대역량은 ‘지식탐구’가 우위에 있지만 ‘융복합’, ‘다양성존중’도 ‘지식탐구’와 비슷한 비율로 선택하고 있다. 중간고사를 치른 뒤 학생들이 평가한 성취역량은 ‘전문지식탐구’ 영역이 88%에 이른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가 프랑스어 습득을 통해, 지식기반 역량에서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낀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학기 말에 이르러 프랑스어를 배우고 난 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학생 개개인이 답한 주관적 의사 표명은 역량의 성과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학생들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성취도는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피드백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상호문화이해 역량에선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인들의 사고 및 철학, 삶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프랑스어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 강의실에서 다 함께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또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쌓은 것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프랑스 여행에 관한 기대와 높은 교양지식의 습득, 아름다운 언어 표현 등이 프랑스어를 계속 배우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한다.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은 프랑스어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이지만, 가장 매력적인 언어라는 말도 전해주었다. 이처럼 상호문화이해 측면의 접근 방식은 다방면으로 프랑스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열망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심역량 중심 교육의 방향성에서 역량 발현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법 방안은 언어도구로서 프랑스어를 교수하는 방법 외에도 상호문화이해 접근과 다양성, 융복합 역량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동기부여와 학습기대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적어도 교수자가 상호작용의 효율성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OECD, 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of Key Competencies. <https://www.oecd.org/education/>
- [2] <2013 Basic Plan for Strengthening University Educational Capacity>, Ministry of Education.
- [3] OECD, DeSeCo.
- [4] S. N. Son, I. Y. Kim, H. S. Song, J. S. Lee, and Y. J. Choi,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Core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5, No. 1, pp. 11-30, February 2021.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1.15.1.11>
- [5] Sangmyung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Promotion Team, SM-IN Core Competency. <https://eduinno.smu.ac.kr/eduinno/smin/intro.do>
- [6] S. S. Paek,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Core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4, No. 3, pp. 11-23, 2020.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0.14.3.11>; N. M. Cho, S. D. Shon and M. K. Hwang, "A Study on the Concept and Validity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6, No. 2, pp. 31-48, 2022.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2.16.2.31>
- [7]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
- [8] S. S. Paek, "A Didactical Reflection on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6, No. 2, pp. 49-62,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2.16.2.49>
- [9] Y. J. Seo, "Changement de paradigme éducatif et pédagogie des langues étrangères (le français): Un virage du savoir vers la compétence", *Études culturelles françaises (French cultural studies)*, Vol. 56, No. 1, pp. 205-223, 2023. DOI: [10.18022/acfco.2023.56.1.008](https://doi.org/10.18022/acfco.2023.56.1.008)
- [10] H. Z. Kim, "A study of the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to enhance motivation of Korean students of French", *Foreign Languages Education* Vol. 20, No. 2, pp. 303-327, 2013.
- [11] Y. J. Seo, "Le programme de français révisé de 2022 en tant que programme d'éducation axé sur les compétences et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interculturelle", *La revue de l'étude de la culture française (The Review of the Study of French Culture)*, Vol. 57, No. 1, 2022. DOI: <https://revue-rdm.com/2001/vers-un-modele-de-l-action/>
- [12] C. Kerbrat-Orecchioni, "La notion d'interaction en linguistique : origine, apports, bilan", *Langue française (French language)*, No. 117, pp. 51-67, 1998.
- [13] G. Sensevy, A. Mercier and L. Schubauer-Leoni, p. 295, 2000; H. J. Kim, "Topic-oriented Liberal English Class Plan for Foreign Learners at University", *JCCT*, Vol. 9, No. 5, 2023,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111>
- [14] H. Z. Kim and S. Lee, "Une étude sur l'estime de soi, l'intelligence émotionnelle et la réponse au stress des apprenants de français", *Études culturelles françaises (French cultural studies)*, Vol. 39, No. 1, pp. 1 - 24, 2018. DOI: [10.18022/acfco.2018.39.1.001](https://doi.org/10.18022/acfco.2018.39.1.001)
- [15] S. Joshua, "Le concept de transposition didactique

n'est-il propre qu'aux mathématiques ?", in C. Raisky and M. Caillot, *Au-delà des didactiques, le didactique. Débats autour de concepts fédérateurs* (Beyond didactics, didactics. Debates around unifying concepts), De Boeck, 1996.

[16]H. Z. Kim and S. Lee, "Relation entre l'intelligence émotionnelle, l'auto-efficacité et soins interpersonnelle chez l'apprenant coréen du français", *Études culturelles françaises* (French cultural studies), Vol. 35, No. 2, pp. 37-60, 2017. DOI: 10.18022/acfco.2017.35.2.002

[17]Y. J. Seo, "Une étude sur le développement d'un programme sur la culture française pour renforcer les compétences clés au 21e siècle", *Société Coreenne d'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Vol. 82, 2023, pp. 53-74. DOI: <https://doi.org/10.36747/ellf.82.3>

※ 이 논문은 2023.12.09.-13, 싱가포르 타운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제 5차 국제프랑스어 교원연맹 아시아-태평양지부 총회(FIPF) 및 제 18차 프랑코포니 학술대회(CREFAP/OIF)에서 "Plurilinguisme et Interculturel: Les défis de la langue française au 21e siècle" 주제로 공동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